

삼위일체 대축일

기도서 313 면(B해)

제1독서 : 신 명 4, 32-34, 39-40

제2독서 : 로 마 8, 14-17

복 음 : 마 태 28, 16-20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 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마태 28, 19)

□ 강론



사랑 한다는 것

고 경 훈 신부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 : 17)고.....

우리 모두는 사랑이란 것을 알고, 항상 사랑이란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지요. 특히 연애하는 젊은이들은 참된 사랑을 구가하고 있지요. 그리고 심한 이는 "나는 당신이 아니면 죽어버릴 겁니다. 진정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고백하는 분도 계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이 순진한 사랑의 고백은 하느님을 택하여 성직의 길을 따는 사람도 이 사랑에 울복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떤 처녀가 신학생 한 분을 그리며 생명을 다해 사랑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 지도 신부님은 그 학생을 불러 그토록 사랑하는 아가씨가 있음을 내심 부러워? 하면서 이렇게 충고를 했었습니다. "베드로 학사님! 신부가 되어서 영혼 천이 나 만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한 아가씨의 영혼부터 구하지요"하고..... 결국 그 신학생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길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지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사랑의 노예로 만드는 것인지요? 온전히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인지요? 얼른 알아듣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본성을 생각해 본다면 해답이 쉽게 나오지요.

사랑이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조건없이, 아낌없이, 온전히 내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서 이러한 사랑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랑을 가르쳐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이지요.

삼위일체란 그 자체 안에만 잠들어 있는 신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느님은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 인간 안에 현존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 결합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묘사해 주셨고, 바울로 사도는 "우리는 성령 안에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가르쳤습니다(로마 8 : 15). 성자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항상 감실 안에 현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사랑 안에 항상 우리를 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삼안에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인동 주임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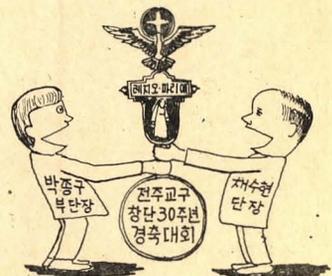
대학생들이야기

대학생들의 미 문화원 접거, 참으로 쓸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국 공관을 접거한 대학생들의 의사표시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공부해야 할 대학생들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말인가! 이른바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고, 정부당국은 광주사태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 무엇을 했던 말인가! 그리고 이 사건을 보도하는 매스컴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미 문화원장인 래빈씨의 "일부 언론이 학생들을 반미(反美)라고 표현한 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궁극증을 풀기 위해서 텔레비전 앞에 나섰다가 그만 텔레비전을 박살내버리고 싶은 충동에 빠지는 것을 어찌 달랠 것인가!

고려대학교에서 내는 신문에 이런 글이 있다. 무석무탄(無石無彈)이나 무탄무석(無彈無石)이나는 애교있는 논쟁(?)이 세간의 관심을 끌더니 안안골에는 그보다 강도높은(?) 포어가 교문 앞에 나붙었는데.../내용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귀군귀학(歸軍歸學), 체제에 관련된(?) 강도높은 문구 탓이니 다음날 아침 누군가에 의해 슬그머니 철거됐다고./호형(虎兄)들 그에 대한 반박도 은근히 기대했지만 반박은 커녕 출처에 사라져 버린 조 조금은 실망한 표정. 하기가 그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高大新聞, 85년 5월 20일자, 石塔春秋) -歸軍歸學, 새겨볼만한 뜻깊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대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 어른들은 그들이 자꾸만 현실문제에 관심 갖는 것을 나무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歸軍歸學,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자꾸만 마음에 깊이 와 닿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숲 정 이 산책



6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마르 16:17

이 말씀은 제자들의 파전에 따른 예수의 약속이다. 여기서 「이름」이란 예수의 현존(現存)과 같은 내용이다. “나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현존의식은 지속적인 「일치」와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

① 일치—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존을 의식케 하고, 능력을 구사케 하는 **성령**을 슬쁘게 하는 죄와 아집(我執) 때문이다.

② 승리—모세는 하느님의 현존을 상실했다면, 승리를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다(민수 14:42-45).

악령이 나간 것은 **그분 이름**의 능력 때문이다. **그분 이름**은 **그분 존재**의 총체를 말한다. 제자들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설파하였다. 여기서 복음이란 1) 하느님 **아들의** 육화, 2) 하느님 피의 속죄, 3) 하느님 **성령**의 재생, 4) 하느님 **말씀**의 성화, 5) 하느님 능력의 부활, 6) 하느님 현존의 영광, 7) 하느님 신앙의 의화(義化)의 내용을 말한다.

제자들이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역사(役事)하셨다(20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한, 그들의 일은 헛된 것이었고, 설파된 **말씀**이 기적(표지)으로 굳혀지지 않는 한, 그것은 **주님**의 현존이 없었다는 증거였다. 만일 우리가 제자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열의 속에 하느님 뜻을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역사(役事)하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 내고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올 것이다”(16:17,18). 사도 바울로는 실제 이렇게 하였다.

□시대의 징표

*** 또, 5월은 지났는데... ***

지난번 선거 때, 우리는 갑자기 터진 말의 붓물에 놀랐다. 가려지고 감추어진 진실이 끝내 은폐될 수만은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까지 입밖으로 말을 해서는 큰일날 것처럼 여겨졌던 금기(禁忌)의 사항도 거침없이 말해졌고 특정한 사람과 관련된 이른바 성역(聖域) 또는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 일도 폭로되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어둠 속에 갇혔던 진실이 날날이 빛 속에 드러나는 것 같았다.

선거 때, 가장 소리높이 외쳐왔던 강도 높은 발언이요 공약의 하나가 ‘광주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다. 그러한 공약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할 것인지, 국민은 조용하나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5월, 참상과 비극, 원한의 5월은 그냥 또 지나 버렸다. 당시 뉴욕타임즈의 사실에서는 광주사태는 「폴란드 공산정권의 자유노조에 대한 탄압을 어린애 장난에 비견케 하는 사건」이었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한 사람과 그들의 단편적인 증언을 제외하고는 광주사태의 진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광주사태의 보다

생생한 기록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듣는다.

광주사태는 겉으로 논의되거나, 공개적으로 토론되지 아니할 뿐, 안으로는 사람들 내면 속에서 뿌리 깊은 응어리로 남아 있다. 또 해마다 5월이 오면 현지에서는 보게, 보이지 않게 내연(內燃)하고 있다.

새롭게 부상한 제1야당이 선거 공약으로써 광주사태의 진상규명 등을 내세운데 대하여 공감과 함께 일말의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솔직한 심경일 것이다. 그렇다고 진상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미진(未盡)인 채로 영원히 묻어둔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그런 태도는 결코 한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몇몇한 자세도 아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제시된 한 정당의 공약이 이유없이 유예 또는 공약화(空約化)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시끄럽던 5월이 지나고 6월을 맞는 이 시점에서 적절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모두가 슬기롭게 이 사태를 극복해결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축! 회 갑
 이 갑 진(요한) 애병회장
 일시: 85년 6월 8일
 축하미사: 가톨릭세타 대강당 12시
 축하연: 가톨릭세타 식당
 참석하시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5. 6. 8.
 복자성당 사무장 이경호

※ 전북의료협동조합지정병원
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비뇨기과
 원장(전문의) **崔昌基(우까)**
 부설: **임상병리검사실**
 임상병리사 **임윤자(글라라)**
 ☎ 1719. ☎ 0616(상담전화)
 (구전역오거리·팔달로 동편·2층)

기미 } 피부를 회고!
 주근개 } 아름답게!
 여드름 }
진주 시 민 약 국
 ☎ 4-0009 3-3338

교 구 소 식

- ☆ **축! 견진**: 남원 천주교회, 9일 오전 10시, 주례-박정일 주교님
1. 재정 참사회: 6월 3일 10시 30분
 2. 소년 꾸리아 창립 2주년 1일피정: 2일 9시 30분~5시, 장소-전동 천주교회
 3. 뽕스제: 2일 오전 9시 30분~오후 8시, 장소-가톨릭센터
프로그램-성경시험, 진전가요제
 4. 수녀님들을 위한 영성피정 및 총회: 일시-3일 오전 10시30분~오후 5시 30분.
가톨릭센터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 참가비-2천원
 5. 마니피캣 제 5회 정기연주회: 전주교구 대학생연합회 마니피캣 합창단 정기연주회
장소-예술회관, 일시-6월 5일 오후 7시 30분
 6. 전주교구 올드레아: 일시-6월 6일 오전 10시 등록
장소-해성학교 강당, 각 지구장은 우정의 모임에 참여할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당별 출연도 가능)
 7. 전북지구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1일피정: 일시-6월 6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장소-노송 천주교회, 참가대상-전북지구 형제회원 전원
지참물-기도서·성경·성가집·수도복(도시락-라면 제공) 1인당 1,500원
 8. 교리교사 교구, 지구임원 및 각 본당회장 6월 모임: 10일 6시 30분, 가톨릭센터
 9. 군중후원회 월레미사: 11일로 연기, 장소-군경묘지에서 11시에 있음
야외미사와 단합대회를 하오니 많은 회원 참석 바람
 10. 교구 전체 전모임: 12일 오후 2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교육관
각 본당 제과 관심있는 분 모두 초대합니다
 11. 각 본당 사무장님께 알립니다: 본당 공지사항을 중요한 것만 요약하여 화요일까지 도착할 수 있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전화번호 안내: 가톨릭 사회복지회(2-5290), 무지개가족(2-2523)
 - * 전화번호 변경: 교구 평신도협의회(4-2935), 농민회(72-2776)

베네딕서(속편) 개강: 성서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하며 특히 하느님의 말씀을 생활화 하도록 돕는 강좌입니다

등록기간-6월 3일~6월 12일, 매일 09:00~18:00
 개강일시-12일 오후 7시 30분
 강 사-법석규 신부
 수 강 료-2만원(수료시까지-1년분),
 교 재 대-1만5천원

요심이 (617) 김병오



영지·영지·영지!

최고의 건강식품 불노초
영 지 버 석

- * 직접 생산하여 저렴하게 보급합니다.
- * 재배방법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합니다.
- * 연락 주시면 안에서 보내 드립니다.

월성 영지 농장

최 택 승(날시스)
강 영 순(제노베파)
이 리 ④4773 · ②8953
이리시 월성동 403
(성글라라 봉세수녀원 앞)

오수분료 설계·시공·감리

유성정화조

f.R·P, P·E 정화조
 생산판매
 Water Tank 생산판매
 농촌 삼조식 생산판매
 전주시 전라중학교 앞
 ☎ 74-4880
 김 세 인(이냐시오)

고려페인트 대리점

- * 각종 페인트 도산매
- * 공사청부 * 김수리 전문
- * 각종 보수공사 일절 문의 상담

대한 도장공사

김 의 화(요셉)
 ☎ ④4874, ④6522
 전주 서노송동(중앙성당 옆)

위상양내과의원

◎ 종합검사 내시경 및 초음파 검사시설완비

전주시 고사동 1가 184
(구 역전오거리)

☎ ②9152. 1752

위 상 양 (프란치스코)
 김 병 희 (글 라 라)

제 I ① 지구 각 본당소식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홍 태
사무실 2-7032 보좌신부 김 의 철
수녀원 " 사도회장 이 흥 재

1. 축! 성인 영세자 57명 탄생: 축하드립니다
 2. 어린이 영세식: 9일 오전 9시30분에 본당에서
 3. 본당 올드레아 성지순례: 오늘 오전 7시 출발
본당내의 꾸르실리스파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라며
성지-솔피성지
 4. 예수성심회 월례회: 4일 어머니미사 후
 5. 첫 영성체: 9일 공식미사 중에 합니다
 6. 예비자 입교식: 30일 공식미사 중에 합니다
 7. 꾸리아 회합: 9일 오후 2시
각단 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8. 분재 강의 계속: 오늘부터 다음주까지, 공식미사 후
 9. 콩스 순회미사: 8일 저녁 8시, 황윤리공소
 10. 금주의 전례담당: 제1조, 차주는 제4조가 담당합니다
책임감 있게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11. 축! 혼인미사: 오늘 12시
신랑-김종문(바오로)군, 신부-설갑순양
- 지난주 봉헌금: 438,840원 교무금: 369,000원
지난주 신축기금: 78,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1. 보미사단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중·고 보미사단 포함
 2. 대학생회: 매주일 오후 5시30분
본당내 전학생 참석 바람
 3. 견진성사 받으실분은 사무실에 속히 신청 바람
견진교리-17일~22일 신부님반-저녁 8시
수녀님반-오전 9시, 23일 견진성사
 4.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13일
축하미사-오전11, 축하식미사 후 많은 기도와 협조
바람
 5. 축! 회갑, 이갑진 애령회장
8일(토) 12시미사 센터에서, 축하연-센타 식당
 6. 반회합: 6일 저녁 8시 저녁미사 없음
다가동1반-수녀님(김안나씨 반장)
다가동2반-신부님(조마리아 반장)
 7. 금주 성당청소: 월-사도의 모후pr
토-자비의 모후pr
 8.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강기연 ②이갑진
 9. 행복한 가정운동: 9일 11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216,015원 교무금: 531,25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사도회장 이 정 우

1. 구역 대의원회: 공식미사 후
 2. 치과진료: 다음주일에 있습니다
 3. 예비자 교리: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4. 상관 공동체 캠페인
인사를 잘하고 남의 말을 하지 맙시다
 5. 본당 유지비 부족: 교무금을 내주세요
 6. 협조요망: 어린이미사와 학생미사에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관심을 두셔야겠습니다
 7. 주일미사 참례: 농번기에 바쁘셔도 주일미사는 꼭
참례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1,870원 교무금: 101,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사도회장 김 낙 균
유치원 2-2276

- ☆ 예비자 교리 실시
남자반-매주 수요일 저녁 8시30분
일반인반-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적장인-화요일 오후 8시30분
중·고생-일요일 오후 6시
1. 사도회 월례회: 5일 저녁미사 후
 2. 자모회: 4일 오전 10시30분
 3. 꾸리아: 다음주일 오후 2시
 4. 반장님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성심회: 13일 오후 2시
 6. 요나회(청년회) 모임: 8일 오후 5시
 7. 성지순례: 6일 미리내 및 꽃동네 경유
※ 새벽 6시 본당에서 출발
시간 엄수 바랍니다(도시락 지참)
 8. 신학생 후원금 신입: 현재 68구좌
 9. 1지구 중·고 체육대회: 서학동 우승!
 10. 감사: 주일학교 신앙대회, L.M 경축행사 무사하
게 마쳤습니다
 11. 차주전례: 해설-김상곤·오정희
독서-①차상열 ②함문권, 기도-요나회
- 지난주 봉헌금: 일반-314,511원,
주일학교-5,200원, 중·고-12,350원
계-332,061원
교무금: 233,5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곤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 병 오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30분
 3. 자모회: 다음주
 4. 첫 영성체 교리: 10일 오후 5시~6시
대상-국민학교 3학년 이상
 5. 200주년 기념사업에 적극 참여합시다
황태순·최기열-각 1만원, 감사합니다
 6. 6월은 예수 성심성월입니다
 7. 주일학교 자모회: 4일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여숙, 독서-①김동연 ②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유철중 ②안득수
저녁미사: 해설-최원일, 독서-①최종만 ②이훈
- 지난주 봉헌금: 1,194,1700원 교무금: 402,0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 교 성
수녀원 2-4804

1. 축! 견진성사: 오늘 10시
 2. 교육관 기공식: 견진미사 후-박정일 주교님
 3. 여성 꾸르실리스타 탄생: 김테베사·문루시아
 4. 예비신자 모집: 6월 한달-견진자의 관심 바람
 5. 신축 목주기도: 6,721단, 누계-57,682단
 6.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글라라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7. 구역기도 모임
효자1단지 4일 3동 203호-이영희씨 덕
- 지난주 봉헌금: 517,190원 교무금: 615,000원
신축기금: 115,000원